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대상 '간이과세자' 유력

### 금융연, 영세업자 규정...200만 가맹점중 80만곳 혜택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이 간이과세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를 만든 금융연구원이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했으며 금융감독당국 역시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카드사들도 그 정도면 큰 무리없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주요 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의 기본틀로 삼고 있는 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가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원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감독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간이과세자 외에 영세업자를 공식적으로 규정할만한

뾰족한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영세 가맹점의 정의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확인했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가 부가 가치세 납부·신고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연간 매출액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카드사 역시 영세가맹점을 간이과세자로 정의하는 데 '큰 무리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설정할 경우 전체 200만 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4G포럼’ 오늘 개막

삼성전자가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4G 구현을 위한 기술과 표준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삼성 4G포럼 2007'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삼성 4G포럼 2006'에서 세계 최초로 4G 시범기술을 시연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 “중국 제품 한국 점령”

### 소비재 36% 점유

중국산 소비재가 한국 수입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 침투도가 높아졌지만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시장 점유도는 낮아지고 있어 한국의 대(對)중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중국제품이 한국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보고서에서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중국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4.6%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1.4%, 지난해에는 15.7%로 15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재 등 제품 성질별로 산출한 결과, 중국산 소비재의 점유율은 1992년 9.8%에서 2002년 28.8%, 지난해 35.7%로 늘어나 중국 소비재가 한국 수입시장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국산 자본재의 점유율은 1992년 0.45%에서 2002년 9.22%, 지난해 18.5%로 수교 이후 41배 늘었다. /연합뉴스

# 수입담배 세금 줄줄 샌다

### 공공기관 과세자료 공유시스템 없어 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 등 부과못해

공공기관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수입담배에 당연히 물려야 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등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감사원이 제출한 '보건복지부 대상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담배 수입판매업자는 수입담배 1갑당(20개비)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

육세를 자치단체에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수입담배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자치단체에 제공한 뒤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 통관한 경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세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해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등 수입액원의 세금부과가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군포시는 지난 2005년 8월 22일 담배수입판매업자 A씨로부터 수입담배 480만 갑에 대한 납세담보금 50여억원을 받지 않고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해 왔고 A씨는 이 서류를 관할세관에 제출, 같은 해 8월 25일 수입담배 162만 갑을 통관해 판매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군포시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군포시는 지방세 19억여원을 부과, 징수하지 못했다. 물론 복지부도 A씨로부터 건강증진부담금 5억여원을 거두지 못했다. /연합뉴스

## 외국인 코스피서 100%이상 수익

### 최근 4년 시세차익 추정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4년여 동안 이어진 대세 상승기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수십조원의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대세 상승기 전반부 2년3개월 동안 한국주식 약 28조원을 샀다가 후반부 2년1개월 동안 28조원 어치를 팔아치웠으며 이 과정에서 수

십조원 규모의 시세차익과 환차익,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쓸어 담기 시작한 2003년 5월 초, 코스피지수는 500대 수준이었다. 이 무렵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와 함께 국내 증시의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 외국인은 그 때부터 코스피지수가 1,100대로 올라선 2005년 7월까지 2년3개월 동안 우량주를 중심으로 28조468억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고소 없어도 처벌된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소프트웨어(SW)를 불법 복제하거나 복제품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가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기 때문으로, 형사처벌대상은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판매하거나 6개월내에 침해한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 자녀 1인당 稅지원액 1300만원 이상

### 세계개편 따라...독신자 세 부담 4인가구의 2.3배

정부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늘면서 내년부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 등 세제지원 규모가 단순 합산해서 자녀 1인당 최대 1천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도 연봉 3천만원 원인 독신자 가구는 같은 급여를 받는 2자녀, 4인구의 2.3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세계개편안은 자녀 출

산·입양공제를 신설, 근로자나 사업자 구분없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 무조건 2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출산비용이나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을 감안한 조치다.

또 내년부턴 육아 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은 1인당 평균 440만원 수준이어서 육아휴직 등을 했을 경우

이만한 비과세 지원이 이루어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 가구에 가구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자녀 없이는 혜택을 받기 힘들다.

세계개편안은 또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항목에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포함시켜 내년부터 교육비 공제를 한도인 200만원까지 채워서 받기 쉬워졌다. /연합뉴스

## 빠르면 내달 '탄소 펀드' 나온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소배출권 에 대한 펀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간 투자대상에 탄소배출권을 포함토록 하는 간접투자자간 운용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

음달 9일 금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 법규에는 펀드 투자대상에 탄소배출권이 포함돼 있지 않아 탄소펀드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금감위에서 의결

되면 공고 후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에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탄소배출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탄소펀드를 출시했으며 탄소배출권의 투자 근거가 마련되면 연내에 탄소배출권 전문 투자펀드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KT 파워빌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CALL” 서비스도 이렇게 합니다.**

무선기재 휴대용, GPS기능기재 차량에 최적화된 이동통신 KT 파워빌

KT 파워빌 파워빌 콜시스템 이용전화번호

KT 파워빌 광주지점 062-526-0130

**(주)제주무궁화관광**

**모이아 동행 제주여행**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3박4일 129,000원, 5박6일 189,000원, 1박 2일 49,000원, 4박5일 129,000원

<b>제주도여행</b> 1박2일 49,000원	<b>제주도여행</b> 2박3일 89,000원	<b>제주도여행</b> 3박4일 129,000원
<b>제주도여행</b> 4박5일 129,000원	<b>제주도여행</b> 5박6일 189,000원	<b>제주도여행</b> 6박7일 249,000원

문의: 064-744-1109 www.jejuw.com